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의 발전적 환경운동으로 질 좋고 저렴한 환경마크상품 소비촉진에 최선

이상영 / (사)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



▲ 이상영 (사)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져 전지구적인 위기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각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은 환경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반정부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던 때부터 사회각계에서 어려운 상황을 딛고 꾸준히 환경운동을 전개해 온 많은 환경운동가들의 숨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면 10여년이 넘게 환경 및 여성단체에서 환경운동을 전개해 온 이상영씨가 지난 1월 15일부터 환경부 위탁단체의 성격을 띤 (사)환경마크협회의 사무국장을 맡았다는 것은 커다란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선진국의 여성일수록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양식의 정착에 대한 인식이 깊고 또한 시민적인 차원에서 환경오염예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환경상품을 매개로 활동하는 대중적인 기관인 (사)환경마크협회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터에 받은 제의라 선뜻 응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 국장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중간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협회의 위상과 소비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므로 같은 여성으로서 협회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환경마크협회 노용희 회장의 배려와 격려가 사무국장직을 맡은 결심의 큰 동기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환경마크협회는 재생종이, 비누 등 중소기업 중심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을 주로 해왔으나 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 상품화에 문제점이 많았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인식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환경상품을 사겠다는 답을 하지만 환경상품에 대한 실구매력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중소기업 위주였던 (사)환경마크협회의 활동폭을 확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질 좋고 저렴한 환경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제·가전제품 등 시민이 많이 사용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상품군을 주로 개발해 실질적인 구매를 향상시키고 에코샵의 개장, 인식홍보 등을 통해

친근감있는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 공할 계획입니다”라며 이후 (사)환경마크협회의 방향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교육계에 계신 아버님의 영향과 여성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의 평등성 등에 대한 관심으로 여성·교육운동을 하 던 이 국장은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서진옥 씨의 권유로 1986년 현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교 육부장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가 공해추방운동연합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팔당호 골재채취문제가 터졌 습니다. 천오백만 시민의 젖줄인 팔당호에서 골재 채취를 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 군요. 그 때 저희 여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여성단체를 결합시켜 수도물살리기운동연합준비모 임을 구성해 제법 힘있는 활동을 전개했고 이런 움 직임이 계속 되고 있을 때 두산그룹 폐늘사건이 터 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경실련, YMCA 등 의 단체가 결합하면서 결국 골재채취계획이 취소 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라는 이 국장은 여 성들의 힘으로 촉발되어 사회문제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냈다는 데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이 국장은 오늘날 언론이나 선거 등을 통해 가 장 먼저 떠오르는 현안이 환경문제가 된 것은, 환 경오염의 심각성이 그만큼 심화되기도 했지만 보 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이 전개했던 활동의 역할 이 컸다고 이야기한다. 사회구조상 남성들은 요직 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했지만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고 우유팩을 수거하고 환경관련 행사 때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활동해 온 여성 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 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환경문제에 대해 이 국장은 “지금까지 는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한 후 상품불매운동 등을 통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차원이었지만 이제는 우 리나라 환경운동에 방향도 사전예방차원으로 맞 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내에서도 환 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정착문제가 대두될 것이 고 녹색소비자운동 등 자체적인 움직임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사)환경마크협회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환경마크상 품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저희 (사)환경마크협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중요한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저는 그 가능성을 확신합니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1986년 결혼해 시부모님과 남편,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국장은 자신의 사회활동을 이해해주 는 가족들이 참으로 고맙다. 특히 훌륭한 일을 한 다며 자신을 격려해주시고 환경강연회에도 직접 참여하시며 늘 바쁜 머느리를 널리 이해해주시는 시부모님은 출산과 가사노동 등 여성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에 선 이 국장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한다.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늘 환경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는 자그마한 체 구에 유난히 큰 눈이 인상적인 이 국장의 자신감과 추진력으로, 하루하루 다르게 영향력을 키워갈 (사)환경마크협회의 발전하는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